

한우농가 교육영상제작

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

소속 : 평창영월정선축협
강사 : 서봉운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육성우시기

- 육성기 : 젖 뎀 후 3~4개월령(체중90~110kg) ~14개월령
- 뼈, 내장, 제1위 등 소화기관과 체성장이 활발한 시기
- 조단백질(CP)함량은 높이고(15~16%), 에너지함량(TDN)은 69~70% 정도 유지
- 비타민, 무기질이 풍부한 육성용 배합사료를 체중의 1~1.5%정도로 제한 급여
- 영양가 높고 기호성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 => 스트레스 최소화
=> 제1위의 발달 촉진
- 미네랄(블록) 급여 => 성장과 발육 촉진에 효과적
- 환절기시 호흡기 질병 대책 마련 : 발견 즉시 치료/깨끗한 환경, 신선한 물 필수
- 발육부진이나 과도한 비육이 되지 않도록 일당증체량 0.6 ~ 0.8kg으로 유지
- 에너지의 과다공급, 단백질공급 부족 => 과비현상 초래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육성우 사육 기본관리

- 우선, 반추위, 골격, 근육, 생식기가 최대한 성장하도록 관리
- 반추위 발달을 위해 미량광물질, 비타민 필요
- 일당증체 관리 (1~6월령 0.8kg이하, 7~12월령 0.5~0.7kg 유지)
- 우군의 발육정도에 따라 우군 및 우방의 재배치 필요
 - 서열 타툼으로 정량급여 곤란
 - 과도한 다툼으로 인한 상처나 스트레스 최소화
- 육성우 과다급여로 인한 문제점
 - 골격성장 이전에 체지방이 먼저 축적 => 대사장애 유발 가능성 높음.
 - 조기에 난소낭종 발생 가능성 높음.
 - 반추위 내 전분질 소화 미생물의 증식으로 조기에 체지방 증가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기록관리

➤ 육성중인 암소의 기록관리는 필수

- 사료, 조사료 급여량 기록 (발육표준치와 비교, 정상발육 확인)
- 발정날짜 기록 (발정이 정상 주기로 오는지 확인)
- 체중측정 자료 기록(개월령 대비 일당증체량 확인)

■ 송아지 제각

➤ 대규모 번식관리를 위해 제각 필요

- 소가 온순해진다.
- 우군 내 서열다툼 완화
- 뿔에 의한 상처나 유산 등의 사고 발생 無
- 사료 섭취시 소들 간 경합 無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사료급여 관리

- 6개월령까지는 청초나 사일리지 등 수분 많은 조사료는 제한 급여
 - 1일 4~5kg 이내 건조 위주로 사육
- 조사료는 부드럽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급여
 - 벣짚만 급여하는 것은 非바람직.
 - 부득이한 경우 깻묵 등 단백질 사료와 비타민 첨가제 별도 보충
- 조사료의 질이 좋을 때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% 정도, 조사료의 질이 나쁠 때는 1.5% 정도 보충 급여.
- 10개월령 이후에는 질 좋은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면 농후사료를 보충하지 않고도 정상 성장 가능
 - 저질 조사료 급여시 농후사료를 체중의 1~1.5% 보충급여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환경관리

➤ 스트레스 예방 필수

- 생리적 대사촉진을 위한 운동과 일광욕 실시
- 우사의 밝기에 따라 수태율 감소 => 일조량 증진
-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(발정주기 연장, 발정단축, 미약, 무발정현상의 원인) 예방
- 저온시 급수관리가 원활치 않을 경우 과산증에 기인한 난소낭종 발생

■ 외부입식 송아지 스트레스 해소 관리

- 입식기간 사양관리의 핵심은 스트레스로부터 송아지의 회복
- 송아지의 스트레스 회복은 급여하는 사료와 밀접한 관계
- 입식되는 송아지의 스트레스 상태를 감안 => 입식 사양프로그램 제시
- 입식시 양질의 건초를 충분한 양으로 장기간 급여
=> 스트레스 완화와 반추위의 발효안정을 통한 증체량 개선에 유리

❖ 좋은 번식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관리

■ 육성우 사양관리 요약

➤ 번식용 암송아지가 정상적인 번식성적 및 포유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

- 이유 후 초산까지 과비 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사료 급여
-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방사 (하루 4시간 이상 일광욕)
- 일당증체량은 월령대비 유지 원칙 준수
- 농후사료는 조사료의 부족 영양소를 보충하는 수준으로 급여
- 볏짚과 저질사료 급여시 비타민, 미네랄 추가 급여
- 사료효율 및 유전적 자질 면에서 성장이 떨어지는 육성우 개체의 경우, 체중측정을 통한 우군분리 후 농후사료 20~40% 증량 급여
- 암송아지의 과비, 조기번식 유도는 태아 발육부진 초래 (생시체중 감소, 육성을 저하, 어미의 유선발육 부진으로 비유량 감소)
- 육성기 발육이 불완전한 초임우 : 분만 후 영양공급과 스트레스 주의
- 철저한 기록관리 : 번식우의 능력 파악을 위해 필수